

나주배 명성찾기 진통

市 TF팀, 기존 원예과 직원들과 갈등
국제 경쟁력 확보 사업·유통개선 차질

나주시가 나주배 명성을 되찾기 위해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간 이기주의로 청사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주시는 신활력 사업 일환으로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해 ▲배 생애 정주마을 조성 ▲유통마케팅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국비 57억원을 추가 투입해 '나주배'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기획홍보실에 6급 계장을 팀장으로 4명의 신활력 태스크 포스트를 구성했다.
태스크 포스트는 나주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등 활동에 착수했으나 기존 조직인 배 원예과 직원들의 독자 행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태스크 포스트팀이 전문성이 결여된 한시적인 조직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나주배 경쟁력 제고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나주배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이등품으로 전락한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농민교육으로 일관하는 등 농정을 제대로 펴지 못한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나주배'는 수확기가 타 지역에 비해 1주일 가량 빨라 추석에는 가격을 주도하고 있으나 설 명절때는 안성배나 성환배 보다도 15kg 들이 1상자당 가격이 1만원 이상 낮게 책정되는 등 이미 5~6년전 부터 일등품 명성을 잃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태스크 포스트 관계자는 "그동안 배 재배 농민들에게 소득 증대와 무관한 교육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나주배'의 10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내부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감성돔 치어 24만마리 방류
장흥군이 지난 19일 해상낚시공원시설 인근 연안면 회진면 대리항에서 감성돔 치어 24만마리를 방류했다. 장흥군은 지난 5월부터 대하와 감성돔, 넙치 치어 37만마리를 방류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강진의 '구룡폭포'
강진만을 따라 마량항으로 가는 길목인 칠량면 정계리 백산 정상에 금강산 구룡폭포를 쫓 빼 닮은 인공 폭포가 눈길을 끌고 있다. 흰 바위산이라는 뜻의 백산(白山) 정상에 설치된 이 폭포는 강진군이 강진만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주기 위해 이달 초 설치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건강의 섬 완도'를 최고 브랜드

소비자포럼 주최 대상 선정
'건강의 섬 완도'가 올해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완도군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소비자포럼이 공동 주최한 '2007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의 섬 완도'가 대상에 선정돼 20일 오전 김중식 군수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의 브랜드(Brand of the year) 대상은 매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 시상하는 행사이다.
완도군은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소비자 130만 명이 참여, 인터넷과 우편설사를 통한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지난 2005년 깨끗한 바다 청정 이미지를 담은 '건강의 섬 완도'를 지역 브랜드로 개발하고 상표 출원을 마쳤다.
브랜드 개발과 함께 KBS 기획드라마 '해신'이 인기를 끌면서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알려지고 있다.
김중식 군수는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가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한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된 만큼 다양한 매체를 활용, 이를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등 완도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완도 군외파출소

완도경찰서 군외파출소가 18일 군외중학교 강당에서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추석을 앞두고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학생·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김완재 소장은 "각종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부모들도 마음



농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야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담양 고서 하수관거 사업 郡, 일방적 계약 유보 물의

입찰공고 해석 엇갈려 행정소송 조짐

담양군이 고서지구 하수관거 사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입찰 공고' 내용을 임의로 해석, 계약을 유보해 해당 건설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6월29일 사업비 107억6천210만원 상당의 '고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구간 50.143km)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낸 뒤 지난달 10일 서울 H공영(주)을 최종 낙찰자(낙찰가 95억7천만원)로 선정했다.
그러나 담양군은 지난 11일 해당업체의 준공실적이 '입찰 공고문'과 다르다며 계약을 보류했다.
입찰 공고문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하수관거·오·우수 공사 등 관

경 250mm·총연장 31km 이상 준공 실적 있는 업체로 제한한다'로 돼 있다. 입찰 공고일과 준공 실적 모두 10년 이내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H공영(주)의 경우 준공 실적(1997년 8월31일)은 포함되지 않은 입찰 공고일(1986년12월30일)은 제외돼 있다.
그러나 입찰 자격을 부여할 때 입찰 공고일이 아닌 준공 실적으로 제한한다는 게 타 시·군과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군은 지난 2005년 4월20일 담양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 N건설(주)과 계약을 맺었다. 당시 N건설(주)은 H공영(주)과 마찬가지로 준

공실적은 10년 이내에 포함됐었지만 입찰 공고일은 제외돼 있었다.
이 때문에 군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H공영 관계자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 공공기관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며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감사원과 행정부 등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공공문 내용상 입찰 공고일과 준공 실적 모두 포함돼야만 입찰 참여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현재 행정부에 질의를 해 둔 상태"라며 "특혜나 외압 등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흥종 기자 golee@kwangju.co.kr

국유지 불법경작 물의 60代 건축물 불법등재도 확인

신안군 특혜 의혹 확산
국유지 불법경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안군 지도읍 박모(64)씨가 접도구역에 침범한 자신의 건축물을 관리대장에 등재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본보 9월17일자 12면 보도>
양영모(55·지도읍) 군의원에 따르

면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접도구역에 무단 점유해 가스주유소 연료탱크 시설과 화장실 등을 건축하고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10월에도 국도에 주유소 화장실을 건축한 뒤 역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마쳤다.

그러나 신안군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기는 커녕 군비를 들여 옹벽시설을 해주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적공부 사측은 지난달 30일 현지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박씨 측 반발로 측량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신안군은 국유지 불법 경작에 대해 농작물은 수확물에 따라 변상 조치하고 불법 설치한 비 건조기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했다.
/신안=조완범기자 wncho@

바자회의 마법
발하는 "루스터핀츠"

루스터핀츠는... (문서 내용)

문의전화: 1577-2787

무동선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무동선
주요사업: (주)무동선, (주)무동선, (주)무동선

주요사업: (주)무동선, (주)무동선, (주)무동선

주요사업: (주)무동선, (주)무동선, (주)무동선

(주)무동선 부동산 리서치

주요사업: (주)무동선, (주)무동선, (주)무동선

주요사업: (주)무동선, (주)무동선, (주)무동선

주요사업: (주)무동선, (주)무동선, (주)무동선